

STB상생방송 한국의 성씨 '안동권씨' 편 방송



권해옥 회장이 대종회에서 STB상생방송과 인터뷰하고 있다.

STB상생방송은 한국의 성씨 '안동권씨' 편을 방송했다. 첫 방송은 1월 19일 오전 8시에 방송했고, 1월 19일 오후 4시에 재방송하였다. 이후 1월 26일 오전 8시와 오후 4시에 각각 재방송하였다.

한국의 성씨 '안동권씨' 편은 STB상생방송 '한국의 성씨' 제작 팀이 안동의 능동재사와 시조 태사공 묘소, 삼태사묘(三太師廟), 양촌 권근의 삼부자묘 행주산성과 충장공 권율도원수 묘소, 대전 뿌리공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했다. 대종회와 안동사무소에서는 촬영 등 프로그램 제작에 적극 지원했다.

STB상생방송 '한국의 성씨' 김내연 피디(PD) 등 제작팀은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실을 1월 3일 오후 1시에 방문하여 1시간여 동안 권해옥 회장과 시조 태사공 권행은 어떤 인물인가, 안동권씨로 사성(賜姓)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권해옥 회장은 시조 태사공은 원래 신라 왕실의 후손으로 경주 김씨(金氏)였다. 후삼국시대 신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55대 경애왕이 신라 수도 경주에서 견훤에게 살해당하자 고려 태조 왕건은 견훤을 응징하려 고신전부에서 일전을 겨뤘으나 패배하고 밀었다. 시조 태사공은 견훤이 고창(安東)을 공격해 오자 안동김씨 시조 김선평과 안동강씨 시조 김정필과 함께 고려 왕건에 투항하여 견훤의 부대를 크게 무찔러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고려 태조는 고창전투 당시 김행은 능히 기미에 밝고 권도에 통달(能炳幾達)하였다 하여 특별히 권(權)씨로 성(姓)을 내리고 고창전투로 인해 동쪽이 편안하게 되었다고 하여 고장을 안동(安東)으로 개명하고 안동을 부(府)로 승격시켜 쇠읍으로 내려 주었다.

삼태사묘(三太師廟)는 부민들이 삼태사의 공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삼태사묘는 안동권씨 시조 권행과 안동김씨 시조 김선평, 안동강씨 정장필을 배향하고 있다. 지금도 세 성씨

후손들이 해마다 춘추향제를 봉행하고 있다.

시조 제향은 안동에 있는 시조 묘소에서 봄, 가을에 춘추향제를 지내고 있다. 그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300~500여명의 후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도포 입고 유건을 쓰고 옛날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 봉행하고 있다. 시조 묘소는 1100년의 역사

를 지닌 실제 묘소이다. 그래서 안동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안동권문의 자랑으로는 먼저 1476년에 제작된 한국 최초의 죽보 성화보(成化譜)를 들 수 있다. 이 성화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두 번째는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조선시대의 문형(文衡)인 대제학을 조선 최초로 지냈고 아들 권제(權懿)와 손자 권람(權璣)까지 3대가 대제학을 지냈다. 이는 매우 보기 드문 경우이다.

또한 권율장군은 임진왜란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 위기 시 행주대첩과 이치대첩 그리고 독산성 전투에서 승리하여 큰 전공을 세운 분이다.

오늘날 큰 자랑거리로는 '안동권씨 종보'를 들 수 있다. 종보는 월간지인데 완전히 신문이다. 50여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559호에 이르고 있다. 발행된 신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하고 있다. 큰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상생방송은 고장전투 당시 김행은 능히 기미에 밝고 권도에 통달(能炳幾達)하였다 하여 특별히 권(權)씨로 성(姓)을 내리고 고장전투로 인해 동쪽이 편안하게 되었다고 하여 고장을 안동(安東)으로 개명하고 안동을 부(府)로 승격시켜 쇠읍으로 내려 주었다.

삼태사묘(三太師廟)는 부민들이 삼태사의 공을 기리기 위해 지은 사당이다. 삼태사묘는 안동권씨 시조 권행과

안동김씨 시조 김선평, 안동강씨 정장필을 배향하고 있다. 지금도 세 성씨

양평종친회 회장단 대종회 방문



권병정 사무국장, 권해옥 회장, 권용만 양평종친회장, 권혁재, 권오상 사무총장 직무대행



육군 11사단 61기계화보병사단에 마스크 5만장 기증

양평종친회(회장 권용만) 회장단이 12월 13일(월) 11시 30분 대종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권용만 회장은 권해옥 회장과 함께 양평종친회는 수개월 전부터 창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없어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양평종친회 창립 추진 현황과 사업 추진 활동 등에 대해 보고했다. 회장단은 권용만 회장과 권효양 부회장, 권병정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하여 회장단을 중심으로 대내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10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하고 있는 육군 11사단 61기계화보병사단을 방문하여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군 장병들

에게 마스크 5만장을 위문품으로 전달한 사례를 들 수 있다. 권용만 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등 어려운 시기에도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힘쓰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지역 주민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장병 여러분 덕분"이라고 위로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양평종친회는 앞으로도 지역방위를 위해 힘써주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며, 군부대 이외에도 양평군 관내에 있는 자율방범대, 적십자, 불우 이웃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권재원 정읍종친회장과 최두환 정읍향교 전교 등 대종회 방문



최두환 정읍향교 전교, 권해옥 회장, 이태열 고암서원 보존회장, 권건중 전 사무총장, 권재원 정읍종친회장, 광경구 총무(왼쪽부터)

권재원(權在元, 36세) 정읍종친회장은 최두환 정읍향교 전교와 이태열 고암서원(考巖書院) 보존회장, 광경구 고암서원 편집위원회 총무와 함께 대종회를 19일 오전 방문했다.

정읍에 위치한 고암서원은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1607~1689) 선생과 우암의 수제자 수암(遂菴) 권상하(權尚夏, 1641~1721) 선생이 배향되어 있다. 사

액서원이다. 1871년(고종7) 훼철되었다 1991년 우암 선생 서거 300주년 행사를 맞이하여 전라남북도 유림 800여 명이 참석하여 고암서원을 만장일치로 복설하기로 결의하여 1993년 완료했다. 현재 30년이 경과 되어 고암서원(考巖書院誌)를 발간하고자 대종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방문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 사무실과 원룸 임대 안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안동권씨 대종회 회관의 사무실과 원룸에 공실이 많이 발생하여 안내하오니 입주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대종회에 소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회관 공실 임대 안내

임대할 부문	면적
사무실 201호	30㎡ (약 9평)
원룸 306호	20㎡ (약 6평)
원룸 401호	20㎡ (약 6평)
원룸 402호	20㎡ (약 6평)
원룸 403호	20㎡ (약 6평)
원룸 404호	20㎡ (약 6평)
원룸 406호	20㎡ (약 6평)
원룸 옥탑방	18㎡ (약 5평)

◎ 회관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2길 11 (용두동 102-196) ※ 제기동역 6번 출구 바로 앞 (도보 1분)
◎ 연락처 : 안동권씨 대종회 사무처 02-2695-2483

안동권씨 대종회

임원회비 납부 안내

임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되지만 임원회비는 꼭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원 여러분께서 납부해 주시는 회비는 안동권문의 발전과 100만 족친의 화합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임원 : 상임위원, 부회장, 이사, 종무위원

◆ 대종회 사무처

▶ 전화번호 : 02-2695-2483~4

▶ FAX: 02-2695-2485

◆ 임원회비 입금 계좌

▶ 국민은행: 033237-04-0069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 농협: 301-0235-6546-41(예금주: 안동권씨 대종회)

안동권씨 대종회

동정

▲ 권숙인(35세, 추밀공파) 서울 대 인류학과 교수가 사회 과학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사회과학대학 첫 여성 학장으로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전신인 문리대(1946년) 개교 이후 77년만이다. 사회과학대학은 문과계열 중에서도 정치학과, 외교학과, 경제학과 등이 주류를 이루다 보니 남성 중심적인 영역으로 평가돼 왔다. 권숙인 학장은 충주가 고향이고, 충주 반월초등학교와 북여자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여고와 서울대 인류학과를 나와 미국 스텐포드대에서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0년 숙명여대 일본학과 조교수로 부임했다 2016년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아버지는 권영철(權寧哲, 91세)씨이다.

▲ 권경수 경북도 환경정책과장이 신임 의성부 군수로 지난 1월 1일 취임했다. 권 부군수는 의성군 구천면 출신이며 1989년 공직에 첫발을 내딛기 시작하여 2012년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을 역임하고 문화유산과, 일자리청년정책관실, 안전정책과 등을 거쳐 2019년 서기관으로 승진해 환경정책과장으로 지냈다.

▲ 권은숙 마을교육공동체 라온하제 대표가 12일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능동적인 교육주체로서 지역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이끌어 왔으며 2014년부터 강릉 송정동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고 인근의 학교와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학부모 동아리 멘토, 마을교육공동체 '라온하제', 온마을학교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마을과 아이들을 잇는 미을교육공동체의 역할을 했다.

▲ 거창군의회 권재경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20년 '거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거창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지역사회 여론형성과 지역사회에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 권진호 한국국학진흥원 국학기반본부 본부장이 2021년 12월 27일 경상북도 도청에서 열린 경상북도 문화

상 시상식에서 제62회 경상북도 문화상을 수상했다. 권진호 본부장은 경북지역 전통문화와 학술연구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한 학자로 그간 30여 책의 국역서 및 연구 저서와 10여 편의 연구 논문을 접촉했다. 또한 소중한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조사수집과 민간소장문화재 학술연구 및 도서 발간을 통해 지역민과 인문학 가치를 공유하였으며 문화재 위원으로 문화재의 발굴과 지정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 권남주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사장이 18일 캠코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식에서 "캠코 창립 6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공적 자산관리전문 기관인 캠코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면밀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1961년 생인 권 신임 사장은 1978년 서울은행에 입행하고 1998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입사한 후 인재경영부 부장, 경영본부 본부장(상임이사), 부사장 등을 지냈다.

▲ 권은숙 마을교육공동체 라온하제 대표가 12일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능동적인 교육주체로서 지역 학부모회 네트워크를 이끌어 왔으며 2014년부터 강릉 송정동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고 인근의 학교와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학부모 동아리 멘토, 마을교육공동체 '라온하제', 온마을학교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마을과 아이들을 잇는 미을교육공동체의 역할을 했다.

▲ 권영범 한국LPG산업협회 대외협력 실장이 가스안전 대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권 영범 실장은 택시, 국가유

공자 등 LPG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LPG연료사용제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전면 폐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기존 LPG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동차 구매자의 연료 선택권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